

같은 오류에 빠져 있으면 이것은 신자 각 개인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되며, 나아가서 그러한 신자가 많은 교회는 성장보다는 오랜 침체속에 해매게 된다.

산상보훈의 여러 청중 가운데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요, 참 제자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아무 구별없이 설교하시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누가 언약의 참 자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한다. 오직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 백성 곧 구원받은 사람 뿐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재 해석

한 정 건*

A review on the eschatology of matthew 24

I. 서 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 장에서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농축되어 있기에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고 나면 종말론에 대해서 다 논하였다고 할 정도이다. 이렇게 본문이 담고있는 내용의 중요성과 또 종말론에서 차지하는 본문의 위치가 큰데도 한국 교회에서는 본문이 잘 다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너무 쉽게 해석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본문의 해석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지는 것은 본문이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인지, 아니면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인지 하는 문제이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례에서는 본문은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A. Schweitzer 등의 "임박한 종말론"(the imminent eschatological sayings of Jesus)이 대두되면서 부터 (Schweitzer, 1954 : 357ff)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문을 예루살렘 멸망을 겨냥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견해는 현대의 계약신학자들 중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 주어졌는지 아니면 세상 종말에 관한 것인지, 혹은 두 사건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피며, 또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들 이라면 어떠한 일들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조교수, 구약학전공

II. 감람산 강화의 도입

2.1. 제자들의 자랑과 예수님의 대답

감람산 강화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제자들은 거대하게 자리잡고 아름다운 돌과 재료들로써 꾸며진(눅21:5)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에게 자랑한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막13:1).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그 건물에 대한 견해는 제자들과는 다르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막13:2).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시안적인 눈, 즉 외형만 보고 그것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는 그들의 태도를 꾸짖으신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마24:2). 실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비극을 내다보고 계신다(마23:37,38). 예루살렘의 멸망 뿐 아니라 또 다니엘이 말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비극의 운명을 지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침울해 하신다.

성전을 바라보며 자랑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갑자기 우울한 분위기에 감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전에(마23장)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그들의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제자들은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심지어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까지 말씀하시고는(23:34-35),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39절). 성전 건물 앞에서의 다시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 심각한 사건으로 부딪쳐 올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들은 마음 속으로 번민하던 중에 감람산에서의 조용한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그 일에 관하여 질문을 한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마24:3).

2.2. “주의 임하심”(Parousia)과 “세상 끝”

제자들의 물음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라고 시작한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그 때에 대하여 물은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곧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으로 이해하였고 이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를 묻는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 멸망을 “주의 임하심”으로 이해했는가? 제자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콤란문서들과 유대인의 묵시적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사상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2.1. 제자들의 이해의 배경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그리는 긴박한 말세론적인 사상은 당시의 콤란공동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임박한 전쟁과 세상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Lasor, 1972: 93ff 참조). 특히 “War Scroll”(1QM)에서는 벨리알을 대장으로 하는 악의 무리들과 미가엘이 인도하는 하나님에 속한 무리들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종말적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됨으로써 끝이 난다(1QM 17:5-8). 4Q Amram(b)은 어둠의 왕자로 불리워지는 멜기세덱과 빛의 왕자(본문이 파괴되어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와 싸우는 전쟁이 묘사된다. 11Q Melchizedek 은 “War Schroll”에서 나타나는 미가엘의 위치에 멜기세덱을 대신하여 놓고 마지막의 전쟁과 심판을 그리고 있다(한정건 1986: 156ff 참조).

콤란공동체는 지상에서 악한 무리들이 선한 무리들(콤란의 사람들 스스로를 지칭함)과 전쟁을 하는 현실적인 사실을 승화시켜, 적군들을 벨리알과 같은 악령의 세력의 종들로서 묘사하며, 자신들을 도우는 영물로서는 천사들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종말에 있을 전쟁은 하늘의 세력들의 전쟁으로써 연결되어 천사장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 콤란공동체는 자신들이 벨리알 즉,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1QS 2:19, CD 12:23, 1QM 14:9, 11QMel 2:4). 하나님께서 잠시동안 벨리알이 왕성하도록 허락하셨다. 어둠의 아들들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자기들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장 미가엘 혹은 멜기세덱을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한다(한정건 1986: 158). 특히 11 QMel에서는 멜기세덱이 회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돌려주며 악한무리들을 심판하러 올 종말적인 왕(왕적인 메시아)으로서 그리고 있다.

콤란 외의 1세기 전후의 유대인 문학작품에서도 천상의 존재로서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적인 묘사는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Similitudes(1 Enoch 37-71), 2 Esdras, 그리고 2 Baruch 등에서는 종말적인 메시아를 “인자”(the son of man)라고 불리워지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위의 책들에서는 “인자”는 처음부터 계셨으며, 지금은 숨겨져 있으나,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묘사된다(Mowinckel 1955 참조). 특히 1 Enoch 37-71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Vermes 1978 참조).

그 당시 제자들의 주위에 이러한 종말적인 사상이 만연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주 이와 비슷한 종말적인 말씀을 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9:28에 주님께서 멜기세덱, 혹은 에녹서에서의 “인자”와 같은 심판자로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왕국과 승리를 자기의 백성에게 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6 : 27, 28은 가장 확실히 이러한 종말적인 말씀으로 여기진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cf 막9 : 1)¹⁾

결론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은 보편적인 사상이었다는 점과, 또한 예수님께서도 종말적인 말씀을 해 왔음을 볼 때에 제자들이 종말적인 사상에 익숙해 있었으리라고 쉽게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해 달라는 요청도(마20 : 21) 그들의 종말적인 인식을 단편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끝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주의 강림”으로 연결되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 끝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와같은 종말적인 사상에 젖어있던 그들의 선입 관념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답해주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이후의 설명은 분명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후의 설명이 과연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것인지(특히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강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παρουσία*의 말 자체가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 “세상 끝”은 무슨 의미인지를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2. 2. Parousia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 언급된 “*παρουσία*”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영적인 강림(즉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f Oepke 1986 : 864f, Beasley-Murray 1954 : 167f, idem 1978 : 565ff, De Young 1960 : 93f, France 1971 : 229ff). 그들의 주장은 마태복음 24장이 전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과 “*παρουσία*”의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서 재림과 특별히 연관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1) 마가복음 9 : 1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이라고 말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왕국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절과 관련된 “긴박한 종말론” (imminent eschatology)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Hendrickson의 이 구절에 대한 논증에 유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In Mark 8 : 38 and 9 : 1, Jesus regards the entire state of the exaltation, from his resurrection to his second coming, as a unit. In 8 : 38, he refers to its final consummation ; here in 9 : 1, to its beginning. It seems that Jesus does not want to separate the end from the beginning of the kingdom” (1975 : 333, cf idem 1973 : 659).

그러나 우리는 이 용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헬라어 “*παρουσία*”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presence(being there)” 혹은 “coming”의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그 당시에 전문적인 용어(technical term)로써 사용될 때는 “왕이나 통치자가 자기의 통치 지역에 도착하는”것을 위해 사용된다(Braumann 1976 : 900).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경우 “*παρουσία*”의 동사형은 “함께 있다” 혹은 (너희에게로) “가겠다” 등으로 사용되어진다(고전5 : 3, 고후10 : 2, 11, 11 : 9, 13 : 2, 10, 갈4 : 18, 20, 요11 : 28, 행 10 : 33, 24 : 19, 계 17 : 8 등등). 명사 “*παρουσία*”가 신약 성경에 사용된 횟수는 총 24회로써 14번의 경우는 바울에 의해서 사용되었고(고전15 : 23, 16 : 17, 고후7 : 6f, 10 : 10, 빌1 : 26, 2 : 12, 살전2 : 19, 3 : 13, 4 : 15, 5 : 23, 살후2 : 1, 8f), 마태복음 24장에서 4번,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 서신들에 나타난다(약5 : 7f, 벡후1 : 16, 3 : 4, 12, 요일2 : 28). 이 중에서 바울이 자신 혹은 그의 동료들에게 사용할 때는 “함께 있다” (presence) 혹은 “도착” (arrival)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전16 : 17, 고후7 : 6f, 빌1 : 26, 2 : 12). 그러나 예수님에게 “*παρουσία*”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임박한 그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사용되었다(살전2 : 19, 3 : 13, 4 : 15, 5 : 23, 살후2 : 1, 8, 고전5 : 23, 약5 : 7f, 벡후1 : 16, 3 : 4, 12, 요일2 : 28 등) (Braumann 1976 : 900). 마태복음을 제외한 서신들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모든 경우의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고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함이 명확하다.

서신들에서 모든 경우에서 “*παρουσία*”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상하면서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과연 이 용어가 재림에 관하여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 27절에 나타나는 “*παρουσία*”는 “인자의 임함”이 곧방이나 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인자의 임함”은 29절 이하에서 자세히 묘사되었다고 본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 따라서 본문 27절의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함이 명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37절과 39절에도 “*παρουσία*”가 사용되었다. 37절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임을 경고하고, 39절은 그 때에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예는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비유들에서 보충 설명되어진다. 42-44절은 갑자기 임할 인자에 대한 예가 도둑의 비유로써 계속되어진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5-51절의 주인의 기다리는 종의 비유도 주의 강림하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서 기다릴 것을 경고한다. 이상의 비유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 틀림없다.²⁾ 따라서 마태복음

2) 박윤선 박사는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에 대한 구절들에서는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으로 주장을 하다가 37절 이후의 주님의 강림에 대한 비유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교훈으로 말한다(1964 : 732f).

24장에 나타나는 네번의 경우들 중에서 세번에서 “παρουσία”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24 : 3절에 언급된 “παρουσία”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는가? 24 : 3절은 앞으로 기록될 내용들의 introduction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뒤에 기록된 용어가 세번 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면 이들의 내용들을 시작하면서 사용된 3절의 경우에도 재림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대한 뒷받침은 역시 25장의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준비에 대한 교훈이며, 염소와 양의 비유도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틀림없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25 : 31).

결론적으로, 로마 왕국에서 “왕의 오심”에 사용된 이 용어는 마태 등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왕인 “그리스도의 오심”에 연관지어 이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McNeile 1980 : 345). 예수님에게 사용된 “παρουσία”의 용어의 모든 경우는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나는 “παρουσία”도 3절 이외의 모든 경우에 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뒤의 교훈들을 주기위해 시작하면서 도입된 3절의 “παρουσία”도 분명히 재림을 의미한 것 이외의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2.2.3. “세상 끝”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듣고는 이를 “세상 끝”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관하여 묻는다. 어떤 학자들은 “παρουσί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용된 “세상 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끝으로 보지않고 “한 세대(즉, 구약의 세대)의 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Beasley-Murray 1954 : 167-169). 그들의 주장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죄악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오순절을 통한 성령 강림을 약속한 내용이라고 한다.

“세상 끝”의 술어가 24장 안에서는 14절에 나오는 것이 유일하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도 Boersma 등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적용시킬려고 애쓴다. 그는 당시의 사람들에게서의 “온 세상”은 로마의 세계, 즉 지중해 연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은 주후 70년 이전에 당시의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본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Boersma 1978 : 79, 1078). 그리고 바울이 스페인을 방문하고자 한 것은(롬15 : 23, 24)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이루기 위함이었으며, 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약 주후 66년 경이었으므로 마태복음 24 : 14이 이렇게 하여 성취되었다고 한다(Boersma 1978 : 79).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증거되었다고 확인해 준 사실도 없다. 혹시 바울은 자신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파의 완성을 이룰려는 욕망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은 로마에서 마쳐야 되며, 복음 전파의 완성은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넘겨주셨음이 사도행전의 마침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Hendrickson은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 백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예상됨이 사실이라고 그의 견해를 밝힌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세상의 역사가 끝남에 있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Hendrickson 1973 : 854). 박윤선 박사도 이 부분에서는 세상의 종말로 본다: “이것을 유대 민족의 말로(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전파되리라는 의미로 보는 학자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세상의 종말에 앞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을 가리킨 듯하다” (1964 : 725).

우리는 “주의 강림”이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의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과 함께(3절), “세상 끝”도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마태와 누가가 그들의 복음서들을 기록한 것은 주후 70년이 지난 후임이 분명하며, 그들은 이 주님의 감람산 강화를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주의 강림”과 “세상 끝”에 대하여 쓰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쓰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McNeile 1980 : 344 참조).

III. 미혹에 대한 경고 (4-6절)

제자들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이 미혹을 받지 말 것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다. 또 난리(전쟁, 재난 등)의 소문이 퍼질 것이나,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이 주님의 경고는 아이로니컬하다고 하겠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징조가 되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쟁과 재난 등이 일어나서 사람의 마음들이 동요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들도 말세의 징조일 것이나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들은 사도시대 때 부터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요한일서 2 : 18절 이하의 당시의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것이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르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줄 아노라.” 이 적 그리스도는 “미혹의 영”으로서(요일4 : 6) 이미 세상에 있다고 한다(4 : 3). 따라서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의 증거가 된다고 한다.³⁾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현재의 적

3) 요한서신과 데살로니가후서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라기 보다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된 거짓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된 참고 구절로서 보다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로써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와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불법한 자로 표현함)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비록 현재 적 그리스도의 비밀이 활동할찌라도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님을 강변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살후2:7). 이러한 불법이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의 활동이 정점(climax)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힘으로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2:6,7) (Morris 1959:227f, Milligan 1980:101). 그러나 그 때에(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억제하심이 풀려서 불법한 자(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이는 주의 강림으로 그를 폐하게 하려 하심이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적 그리스도의 현재의 일반적인 역사와 미래의 특징적인 활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데살로니가후서 2:1절 이하는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말로나 혹은 편지로 “그리스도의 강림”(παρουσία)이 임박했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성도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한다. 마지막 때가 될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교회 혹은 교인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함), 또 저 불법의 사람(적 그리스도)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적 그리스도의 미래의 특징적인 활동). 그의 활동의 구체적인 예는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여 경배를 받는 일이다(4절). 바울은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인한다(3절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4-6절도 마지막에 일어날 많은 현상들이 현재에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동요하고 소문이 난 무하며, 이 틈을 타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허다할 것을 예견 하면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현재부터 존재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사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나 그의 역할이 정점을 이룰 마지막 때의 특징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은 주님이 강림할 때가 아님을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진다.

IV. 마지막 때의 징조 (7-14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7-8절).

본문 7절 이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누가복음 21:16, 17절은 “온역”과 “하늘로서 큰 징조”를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징조들을 두 구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한서신의 구절을 본 저자가 인용하고 있음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4.1. 하늘과 땅의 큰 징조들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의 목시적인 묘사(apocalyptic descriptions of eschatology)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이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다. 구약에서부터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에 대한 예언이 자주 나타난다. “주의 날”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는 날이며 자기의 백성을 적에서 혹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사29:6, 35:4, 59:40, cf 사11:11-16, 렘33:16, 율3:16-21, 미5:7-8). 그 날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예상되어진다(슥2:10f, cf 사66:18ff). 또한 그 날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사2:12-21, 26:21ff, 64:1ff, 암5:18-20, 습1:7, 14, 율2:10-11, 3:11-15, 슥3:8, 14:3 등). 이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닐 것이다(암5:18, 율2:2). 태양이 대낮에 지며 백주에 땅이 캄캄케 될 것이다(암8:9, 율2:10, 31, 3:14, 15, 슥14:6f). 이 두려운 심판의 날에는 하늘에 징조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지진으로 징조를 보일 것이다(율2:10, 3:16, 암8:8).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큰 지진이 있어 산과 골짜기가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슥14:4ff).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마24:29ff).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은 달이 피갈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계6:12-17).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계16:17-21, cf 11:1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마지막 때인 주의 날에 대하여 하늘의 징조로써 해가 어두워지는 것과 또 땅에서의 징조는 지진으로써 묘사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징조들은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2. 네 가지 환란

자연이 보여주는 징조 외에 땅 위의 사람들(특히 성도들)이 당하는 재난도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로써 말해진다. 이는 곧 전쟁, 기근, 온역(눅21:11에 삼입되었음)과 성도의 옥에 갇힘이다. 구약의 성도들에서부터 이 네 가지 환란은 하나님의 징계로써 늘 강조되고 있다. 레위기 26장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시행하면 그들의 소출이 풍족하며 그들의 땅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며, 만약 그들이 율법을 잘 시행치 않으면: (1) 그들이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17, 25절); (2) 기근이 들어 파종이 헛될 것이며(16, 20절); (3) 열병을 보내어 괴롭힐 것이며(16, 25절); (4) 그들을 열방 중에 흩어(포로) 고생하게 할 것이다(33절). 특히 본문은 네번째의 포로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음이 그 뒤의 설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34-45절).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교훈으로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며, 그들이 대적 앞에서 패하며(25, 29ff),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그들을 칠 것이며(22, 24절), 종기와 치질과 피혈병과 개

창등의 온갖 질병으로 그들을 칠 것이며(22, 27절), 대적에게 잡혀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36-46절). 열왕기상 8장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봉헌기도에서도 이러한 네 가지 재앙이 예상되며, 특히 적국의 땅으로 잡혀가는 포로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왕상8:35-53). 그 외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동안 이러한 재앙들은 수시로 그들에게 닥쳤으며, 특히 선지자들에게는 포로로 사로 잡혀감과 포로에서 해방되어 옛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로 취급되고 있다.

요한의 묵시록에서도 이 네 가지 재앙들은 예외가 없이 묘사되어지고 있다. 계시록6:3, 4 절에는 붉은 말은 전쟁을 묘사하고 있고, 다음의 검은 말은 기근을(5-6절), 또 청황색 말은 질병을 상징하고 있고(8절), 그 다음은 짐승이 성도들을 죽이는 재앙이다(8절하-11절). 이들 4가지 재앙들이 땅의 사람들을 ¼씩 죽이는 권세를 얻었다(8절). 특히 이 재앙들에서 제일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짐승의 재앙으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죽임을 당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심이 시작되고 있다(12절 이하). 이 때의 이 성도들의 환란은 구약에서 제일 크게 다루어지는 포로의 재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짐승의 재난은 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서 용, 즉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는 온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것이고(4, 7절), 또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며(6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6절, cf 단7:21, 25). 성도들은 사로잡히며 죽임을 당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8-10절).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네 가지 재난들 중에 마지막 성도의 환란에 제일 큰 관심이 기울여진다. “전쟁, 기근과 지진(온역)들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8절)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앞의 세 가지의 것들은 제일 큰 재난인 마지막의 것을 알려주는 전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9절).

4.3. 성도의 환란 때에 있을 “배교하는 일”

마지막 때의 특징적인 것은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 넘겨주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11절, cf 살후2:3).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 예상된다(12절). 이러한 배도의 행위는 다니엘서에서 적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사용된 Antiochus 4세 때의 사건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Antiochus 4세가 이집트를 향한 2차 원정에서 로마군대의 방해로 퇴군해 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거룩한 언약(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앞세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단11:30), 온 유다 땅에 유대종교를 멸하려고 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적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그는 세력의 신을 공경하고

(단11:38),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할 것이다(살후2:4). 온 세상 사람들은 용(사탄)과 짐승(적 그리스도)을 경배할 것이다(계13:4).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훼방하면서 이루어 질 것이며(계13:6, 단7:25),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종교를 방해하여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마24:15, 단9:27, 11:31, 12:11).⁴⁾

이러한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교회에서 일부가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다. 그들은 참 신앙인들을 잡아 세상의 관원들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할 것이다(마24:10).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남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11절). 거짓 선지자는 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이다(계13:11-18).⁵⁾

4.4.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도 일깨워주고 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성도들이 환란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 특별히 명시되었다: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막13:9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너희의 알바 아니요...”라고 하셨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가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해됨)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함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입어야 함은 제자들이 환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임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누가복음 22:35-38절에

4) 박윤선 박사는 이 재난들은 “아직 세상 끝의 징조는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될 뿐이라”고 하며, 또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역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해서 짐승, 즉 적 그리스도에게 성도가 환란받는 것이 세밀히 묘사되고 있으며, 또 본문 마태복음에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하늘에서 징조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29절 이하) 세상 끝의 징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 자신도 14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세상 끝의 사건으로 본다. 그렇다면 한 문맥 안에 있는 성도의 환란도 세상 끝의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이후에 자세히 논할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대와 의복과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37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복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대접받으면서 증거될 수가 없을 것임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여겨진다. 특히 “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닥칠 환란을 예상케하는 말씀이다. 제자들은 옥에 넘겨지고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핍박과 복음증거의 사명은 주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절박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또 특히 그 어느 때 보다는 더욱 어려움 중에서(환란 중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V. 대 환란(15-28절)

앞 절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에서 4가지 재난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서 성도의 환란이 정점을 이루는 징조로 주어졌다. 이 성도의 환란은 예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징조인 성도의 환란에 대하여 15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가하시고 있다.

5.1. 대 환란은 급격하게 이를 것이다.

성도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그 때는 이미 환란이 임박한 줄 알고 급히 도망을 가라고 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즉시 있는 그대로 도망을 하라고 한다(17절). 밭에서 일하는 자가 걸 옷을 밭 모퉁이에 두고 일을 하다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 걸 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킬 겨를도 없이 즉시 도망을 가라고 한다(18절). 이는 환란이 닥치는 속도가 급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릴 수가 없음을 말한다. 그 날에 아이 뺨 자들과 찢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19절).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20절)는 것은 겨울에는 도피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먼 여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5.2. 환란이 극심할 것이 예상된다.

그들이 이렇게 급하게 도피해야 할 이유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1절). 창세에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세상의 환란이 정점을 이루는 것은 주후 70년의 사건도 큰 것이겠지만 계시록 13장 등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환란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때의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기간이 조금만 더 계속되면 땅 위에 구원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5.3. 환란의 기간은 짧을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22절).

“날들을 감하신다”는 뜻은 그 때의 날들을 24시간 보다 짧게 만들거나, 아니면 환란의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첫번째의 의미보다 두번째의 것이 더 가능한 뜻일 것으로 받아들여진다(cf McNeile 1980 : 350). 성경의 말세론의 많은 구절들은 적 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밝힌다(단7 : 25과 12 : 7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단9 : 27과 계13 : 5은 “3년 반”의 기간). “날들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란의 때를 오래 끌게 놓아두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또 이 환란의 기간을 전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손에만 맡기지 않고 주님께서 control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무방비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급히 서둘러 이 환란의 때를 끝내시고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5.4. 환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의 활동의 기간을 짧게 끝내시기 위해서는 그를 쳐 부수고 심판하시는 길 밖에는 더 없을 것이다. 여러 종말론의 메세지에서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길은 예수님의 재림 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단7 : 22, 26-27, 계6 : 16, 14 : 11, 19 : 11-16). 본문 29절은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마가복음의 기록은 더 분명히 밝힌다: “그 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εὐσκεῖται ταῖς ἡμέραις μετὰ τὴν θλίψιν) (막13 : 24). 이 때의 정관사 τὴν은 바로 직전에 언급된 대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박윤선 박사는 마태복음 24 : 9절의 “그 날 환란 후에...”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하나님의 종교에 대한 유대적 주권이 없어질 것을 예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늘에 징조가 보이는 것”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됨을 가르친다”는 성명미상의 한 학자의 주장을 소개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대 환란을 주님의 마지막 재림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도 곧 이어지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수긍함으로써 앞의 그의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다. Hendrickson이 이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겠다: “Jesus is here speaking about a tribulation that will characterize “those day,... a very brief period of dire distress that shall occur

immediately before his return” (1973 : 860).

이 마지막 때의 환란 중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예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성도들의 기대에 편승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서의 징조와 함께 오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은 경고하신다 :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6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행1 : 11)는 예언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 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27절).

주님의 재림은 주검이 있는 곳에 모여드는 독수리의 습성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다 :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27하-28). 여기서의 주검은 앞 절들에서 언급된 성도들의 대 환란과 주검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러한 주검(대 환란)을 향하여 몰려드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주검이(대 환란) 있는데도 독수리들이 오지 않는다(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반면에 독수리들이 모이는데 (주님은 오시는데)도 주검이 없다(대 환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질책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5.4. 대 환란은 분명한 징조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15절).

마태복음 24 : 15절은 감람산 강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본 소논문의 핵심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다. 대 환란의 시작은 다니엘이 예언한 일이 성취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다니엘의 예언이 무엇을 뜻하며 언제 이루어 질 것에 대한 예언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서는” 예언이 네 번 나타난다.

5.4.1.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은 수양과 수염소의 비유로서 메데-바사 나라와 헬라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이 예언의 climax은 수염소에나 나타나는 한 작은 뿔의 역할이다. 이는 헬라 나라인 시리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Antiochus 4세를 가리키는 예언이다. 이 왕은 점점 강성하여져서 영 화로운 땅(유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8 : 9), 하나님을 대항하며(10절),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헐고, 망하게 하는 죄악(성소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행할 것이다(11-13절).

우리는 다니엘 8장의 한 작은 뿔에 대한 묘사를 7장의 한 작은 뿔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오며 마지막 짐승에서 열 뿔 사이에 나타나는 한 작은 뿔이 클라이막스로써 주어지고 있다. 7장의 이 작은 뿔은 마지막 왕국(로마 왕국)에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인다는 것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켜 1/3 정도를 무너뜨리며(7 : 8, 24),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드디어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고(9절 이하), 그의 나라 권세는 다 빼앗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11, 26-27절). 8장의 작은 뿔은 7장의 그것과 동일한 인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성격과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함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다니엘은 적 그리스도를 7장에서 소개하고는, 그에 대한 설명을 8장에서 Antiochus 4세의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Antiochus 4세는 적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다니엘에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5.4.2. 다니엘 11 : 31

다니엘 10-12장은 하나의 환상의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환상은 분명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부분은 바사왕에서 시작하여 Antiochus 4세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역사적인 진술의 예언이고, 그 뒤에는 Antiochus 4세의 설명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아직 역사적으로 나타난 일이 없는 한 가공의 인물, 즉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언의 첫 부분에서는 긴 역사적인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긴 서술은 안티오쿠스 4세를 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역사적인 서술 부분에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설명이 최후로 길게 묘사되고 있다(11 : 21-35).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제 2차 이집트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31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에게 대 환란이 닥치며, 칼날과 불꽃으로 사로 잡힘과 약탈 당함의 극심할 것이다(33절). 이 때에 많은 사람이 헬라 군대와 야합할 것이나, 그 중 지혜로운 자들 몇 사람은 연단되고 정결케되어 작정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마카비 상·하서에서 생생히 설명되고 있으며, 실제 역사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있다.

5.4.3. 다니엘 12 : 11

다니엘 11 : 36절은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로 시작한다. 이 때 “이 왕”은 문 맥상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와 비슷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는 세상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며, 기록한 땅(유대)을 짓밟으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12 : 11).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볼 때에 그는 안티오커스가 아닌 것이 드러난다. 그는 조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신”을 공경하며(38절), 세상 왕국들과의 전쟁에서도 이집트 너머 구스와 리비아까지 점령하는 일 등은 안티오커스 4세가 한 일이 아니다. 11 : 36~12 : 13절의 기록은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의 등장인물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데 거의 모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동의한다. 따라서 이 환상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안티오커스 4세에 대한 기록은 이 뒷 부분의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위한 표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5.4.4. 다니엘 9 :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9 : 27은 종말론을 푸는데 귀중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며, 또한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이다. 본 구절의 해석에서 보수주의 학자들 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E. J. Young(1977), 간하배(1988), 그리고 박윤선 박사(1967)는 본문을 그리스도 초림과 관계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들의 근거는 9 : 24에서의 속죄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과 일치함에 두고 있다 하겠다. 또한 27절에 그가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에서 언약은 메시아와 관련된 술어이고, 이것은 재래의 옛 언약을 다시 발효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제사를 폐지시켰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거행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박윤선 1967 : 470).

그러나 우리는 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의 전후 문맥과, 다니엘 9장의 환상의 주제 파악, 또 다니엘서 다른 부분에서 같은 내용이 사용된 경우, 또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의 흐름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70 이레(70×7)의 예언에서 69 이레 이후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26절), 한 왕(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훼파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한 이레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27절에 나타나는 언약을 맺고 또 파기하는 인물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기는 힘들다. 만약 이 마지막 이레를 26절의 예수님의 죽음 앞의 기간으로 옮긴다면(실제로 문맥 상에서 불가능하지만), 이 다니엘 9장의 예언의 전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한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맥이 없고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나 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본문 27절은 바로 앞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을 파괴한 한 왕을 이어받은 적 그리스도의 활동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둘째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은 다니엘서의 다른 세 곳에서 적 그리스도 혹은 적 그리스도의 표상인 안티오커스 4세에게 사용된 것인데, 꼭 같은 표현이 이 곳에서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성경 해석학의 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 해석하기에 애매하고, 또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말이 쓰여진 다른 곳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해석해야 함이 정당한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셋째로, 다니엘 7장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 후 8장에서 적 그리스도를 보충 설명하고 있고 또 10-12장도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다니엘의 흐름에서 9장만 특별하게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 파악이 잘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니엘이 7장에서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켜 계속 그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다니엘서 전체의 문맥으로 보아 9장에서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네째로, 다니엘 9장의 주제는 성도들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것이다(특히 2절 참조). 따라서 24절의 속죄에 대한 언급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Context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70 이레를 3구분하여 모두 환란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구분인 한 이레도 적 그리스도에 의한 성도의 고난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다니엘 9장 전체의 주제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만약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구약적 제사를 드린 것이라면, 마태복음 24장에서 과연 “이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하라”는 긴급한 환란을 알리는 예표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제사가 성도들이 도피해야 하는 긴급한 예표로 삼은 증거를 결코 찾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등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걸음을 가지러 뒤를 돌이지 않을 정도로 급히 도피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전에서의 기도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고(행3장), 바울은 서원한 몇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성전에 참여하고 있다(행21 : 17-26).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의 가증한...” 것은 안티오커스 4세 혹은 적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이 미래의 대 환란을 예언하시면서 주전 약 160년 전에 일어난 안티오커스 4세에 대한 기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니엘서 9장이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제하고라도 다니엘 12 : 11절이 적 그리스도의 활동임은 명백한 예언이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대 환란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부터 시작됨을 의미한 것으로 보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McNeile : 348 참조).⁶⁾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한 환란은 급격히 닥칠 것이고, 극심할 것이며,

6) Hendrickson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이중적인 실현의 견해를 가진다. 이미 로마 군대가 주후 70년에

그러나 짧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 예상되어진다 할 것이다.

5.4.5. 이 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환란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24 : 20). 이는 성도들이 이 환란을 겪는데 있어서 세밀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두면서 준비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이 환란에 대해 부정을 하거나 또 방관을 하는 태도는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릴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와(32-36절), 노아의 때(37-42절), 도적의 비유(43-44절), 충성된 종의 비유(45-51절) 등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VI.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라”
(마24 : 34).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세상 끝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34절의 말씀에 와서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Hendrickson이 구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대”란(“인류”이든지 “모든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뜻하며,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 질 때까지 결코 끊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1973 : 867). H. Ridderbos도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1975 : 500f). 그러나 J. Murray는 이 설을 반박한다. 만약 유대 민족을 뜻했다면 왜 γενεα 대신 γένος를 사용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구절은 당시 살아있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Murray 1977 : 392ff). W. L. Lane는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당시의 세대들이 이 예언들이 성취될 때에 증언들이 될 것을 말하며, 이는 예루살렘 멸망을 뜻한다고 주장한다(1975 : 486).

H. Ridderbos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그의 견해는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며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근거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이루어질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실현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것이라고 본다. “But just as the pagan altar and the swine offered upon it in the very temple of Jehovah in the second century B. C. pointed forward to the idolatrous legions of Rome, so these in turn foreshadowed the great and final violation by the antichrist of all that is sacred. It is for this reason that in verses 29-31 Jesus is able to say,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the sun shall be darkened…” (1973 : 857).

사건에 이 모든 징조들을 제한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다(1973 : 500).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그 종말의 때에 대하여 전혀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호한 태도로써 말을 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그 때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일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이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적인 뜻을 함축하였을까? 그러나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지어지는 어떤 특정한 기간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본 논문 3장을 참조할 것). 따라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무지가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인지 아니면 다른 때인지 구분이 안되게 말한 원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J. M. Kik는 “all these things”를 두 구분으로 나눈다. 그는 첫 부분을 4-35절까지로 이 예언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이루어졌으며, 24 : 36~25 : 46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들을 두 구분으로 나눌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4-35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예언들이 있으며, 36절 이후는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의 혼란된 주장들 속에서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의 여러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감람산 강화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부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 중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감람산 강화는 “세상 마지막 때”와 “주의 임하심” 즉, 재림에 관한 내용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30절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등은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있다. 37절 이하의 노아의 때의 비유, 43절 이하의 도적의 비유, 그 이하 25 : 46절 까지 모든 비유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임이 명백하다.
- 3) 감람산 강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마지막 대 환란은 다니엘이 예언한 적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부터 시작되므로 이 예언은 세상 마지막 때의 사건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 4) 우리는 여기서 “all(παντα)”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Παντα”는 꼭 “the totality of individual”을 뜻한다고 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마태복음 3 :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개개인의 모든 사람이 다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2 : 17의 “모든 육체에게”는 성령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개개인에게 부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도행전 3 : 9절의 “모든 백성이”에서 유대인 모두를 지칭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를 든다면 무한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람산 강화의 본문에도 “모두”를 앞에 말한 개개의 예언의 모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만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all(παντα)”은 “the totality of individual” 이라기 보다는 “the full number of measure” 혹은 “the representative of whole”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한정건 1987 : 306ff, 특히 로마서 11 : 26절의 “all Israel”에서 “nas”의 의미를 분석한 본 저자의 논문을 참조할 것).

결론적으로 우리는 Hendrickson 등의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double fulfillment)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alvin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Yet what Christ said was true, that before the close of a single generation, believers would feel in reality, and by undoubted experience the truth of His predication... So then, while our Lord heaps upon a single generation every kind of calamities, he does not by any means exempt future ages from the same kind of sufferings, but only enjoins the disciples to be prepared for enduring them all with firmness" (1974 : 151-2). 실제 AD 70년을 기점으로 하여 여러 재난들과 대 환란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로마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 예루살렘의 황폐를 목적으로 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와(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같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임박해서, 그러한 재난과 환란들이 있음을 유의하여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임박한 줄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을 경고하신 교훈이라고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장은 말세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이 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참조들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조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등과 함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본문은 특히 마지막 때에 있을 대 환란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감람산 강화를 예루살렘 멸망(AD 70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그들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라" (34절)는 구절을 두고 앞의 모든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한 것으로 한정지으려고 한다. 특히 한국의 보수 교단에서도 박윤선 박사를 위주로 하여 그러한 경향을 가진 것 같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의 주석은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마지막 때의 일로 인정을 하면서도(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등) 굳이 다른 부분들은 마지막 때의 것이 아닌 것으로 피할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본문을 위시하여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등에서 밝히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De Young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t is quite striking that, although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Jesus' intention was to predict the doom of Jerusalem in these passages, neither Matthew nor Mark record anything like a direct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Jerusalem will be destroyed" (1960 : 93). 즉,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는 예루살렘 성의 로마에 의한 멸망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의 대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칠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재난들과 환란들을 경험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연상했어야 했고, 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AD 70년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환란들을 회상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천재 지변과 여러가지 재난(특히 4가지의 대표적 재난들)들을 그 때의 증거들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의 강단과 학교의 교단에서 주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대 환란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묘사하고 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은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본문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대 환란에 대하여 교회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때를 분별할 것과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서 적

- Beasley-Murray, G. R.
1954 *Jesus and the future : An examination of the criticism of the eschatological discourse.* London : Macmillan.
- Boersma, T.
1978 *Is the Bible a zigsaw puzzle... ?* St Catharines : Paideia.
- Braumann, G.
1976 "Parousia", NIDNTTH ed. by Colin Brown. Exeter : Paternoster.
- Calvin, J.
1974 *A harmony of the Gospels Mt. Mk. Lk. (Calvin's Series), Vol. I-III.* Grand Rapids : Eerdmans.
- De Young, J. C.
1960 *Jerusalem in the New Testament.* Kamben : J. H. Kok.
- France, R. T.
1971 *Jesus and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 IVP.
- Hendrickson, W.
1973 *The Gospel of matthew (NTC).* Edinburg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5 *The Gospel of Mark (NTC).* Edinburg : The Banner of Truth Trust.
- Kik, J. M.
1971 *The eschatology of victory.* Philadelphia : the Presb. & Reformed.
- Lane, W. L.
1975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rk (NICNT).* Grand Reapids : Eerdmans.
- McNeile, A. H.
1980(rep)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Grand Rapids : Baker.
- Milligan, G.
1980(rep) *St. Paul's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Minneapolis : Klock & Klock.
- Morris, L.
1959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NICNT).* Grand Rapids : Eerdmans.
- Mowinckel, S.
1954 *He that cometh,* Eng. trans. by G. W. Anderson. NY : Abingdon.
- Murray, J.
1977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Trust.

- Oepke, A.
1975(4판) "Παρουσία", IDNI ed. by G. Kittel, Vol. V. Grand Rapids : Eerdmans, pp. 858~871.
- Ridderbos, H.
1975 *The coming of the kingdom.* Philadelphia : Presb. & Reformed.
- Schweitzer, A.
1954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Eng. trans. London : Black.
- Vermes, G.
1978 "Present state of the son of man debate", JJS 29 : 123-134.
- Young, E. J.
1977 *The prophecy of Daniel.* Grand Rapids : Eerdmans.
- 간 하 배
1988(4판)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 박 윤 선
1964 성경주석 : 공관복음. 서울 : 총회교육부.
1967 성경주석 : 에스겔서 다니엘서. 서울 : 총회교육부.
- 한 정 건
1986 "멜기세덱 : 11 QMEL과 히브리서의 비교연구", in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 한석 오병세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pp. 145-171.
1987 *The restoration of Israel in covenant perspective,* A Th D thesis at Potchefstroom University.